

현대자동차(주),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구축 추진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이계안)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공정거래협회에서 개최한 '99년도 「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세미나에 총 29명의 실무 담당자를 참석시키는 등 대내외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준수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불필요한 경영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최고 경영층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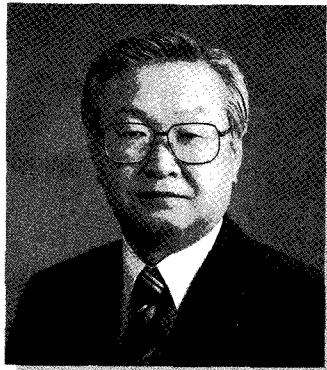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체점검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

내 최대 제조업체로서 갖추어진 방대한 조직 및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정거래 전담팀을 조직하는 것과 함께, 전사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구축을 통해 전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자체점검, 각종 계약서의 유형별 표준화 작업, 사업부문별 정기교육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효율적인 공정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이러한 변화가 타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사의 대외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회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대표 변 봉 덕

서 비 스 업

서초구 양재동 20-19